

◎ 옛이야기를 읽어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학년

반, 이름

옛날, 어느 고을에 사또가 있었습니다. 사또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였습니다. 사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방이었습니다. 이방은 사또가 무슨 엉뚱한 일을 시킬지 몰라 늘 걱정을 하였습니다.

찬 바람이 부는 겨울날, 사또는 갑자기 산딸기를 먹고 싶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산딸기를 따 오너라. 지금 당장 산딸기를 따 오지 않으면 큰 벌을 내리겠다!”

사또의 명령을 들은 이방은 걱정하다가 그만 병이 나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겨울에 산딸기가 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여쭙어보았습니다. 이방은 사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산딸기를 따 오지 않으면 벌을 내린다고 하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아들은 한참 동안 생각한 뒤에 이방의 손을 꼭 잡고 말하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방의 아들은 그 길로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앓아누워 계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이방이 아프다고? 음, 피병을 부리는구나. 네 아비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 이방의 아들은 겁먹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산딸기를 따러 가셨다가 독사한테 물리셨습니다. 그래서 산딸기를 따 오지 못하셨습니다.”

“이 녀석! 한겨울에 독사가 어디 있단 말이냐?”

사또가 어이없다는 듯이 꾸짖었습니다.

“사또님 말씀이 옳습니다. 겨울에는 독사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산딸기도 없습니다.”

사또는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못 하였습니다.



Q 이방이 병이 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이방의 아들은 사또에게 찾아가 어떤 말을 했나요?

Q 사또는 왜 이방의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나요?

Q 이 이야기에 어떤 제목이 어울릴까요?